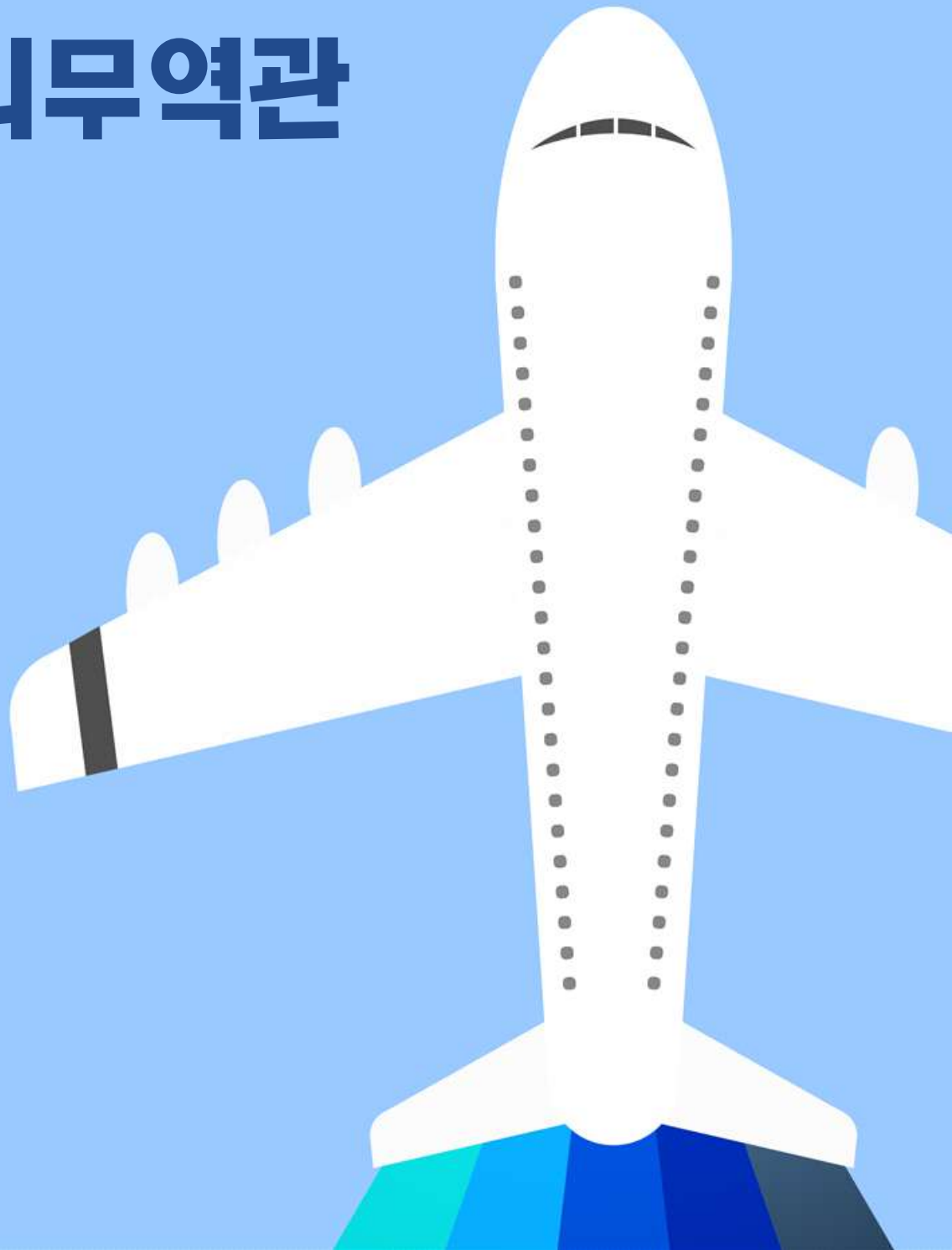


2025 해외출장 가이드

호주 시드니무역관

Sydney



목 차

I. 호주 개황	01
II. 호주 역사·정치·사회	04
III. 호주 경제·무역·투자	08
IV. 시드니무역관 관할지역	29
V. 호주 체류 정보	35
VI. 바이어 상담 시 참고 사항	43
VII. 시드니무역관 안내	47

I. 호주 개황

1. 일반사항

국명	호주(Commonwealth of Australia)
위치	오세아니아(태평양과 인도양 사이에 위치)
면적	769만km ² (한반도의 약 35배 / 남한의 약 78배, 세계 6위)
기후	남부(온대), 북부 및 서부(열대), 내륙(대륙성)
수도	캔버라(Canberra)
인구	2,731만 명 (호주통계청, 2024.9 / 2025.4 기준 최신 정보)
민족	영국계(33.0%), 호주계(29.9%), 아일랜드계(9.5%), 스코틀랜드계(8.6%), 중국계(5.6%) 등 (호주통계청, 2021)
언어	영어(공용어), 원주민어(수백의 방언)
종교	기독교(43.9%), 이슬람교(3.2%), 힌두교(2.7%), 불교(2.4%) 등 (호주통계청, 2021)
행정 구역 및 주요 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주(Stat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사우스웨일스(New South Wales): 시드니(556만) - 빅토리아(Victoria): 멜버른(535만) - 퀸즐랜드(Queensland): 브리즈번(278만) - 서호주(Western Australia): 퍼스(238만) - 남호주(South Australia): 애들레이드(147만) - 태즈매니아(Tasmania): 호바트(25만) ○ 2개 準州(Territo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수도 준주(Australian Capital Territory): 캔버라(47만) - 북부 준주(Northern Territory): 다윈(15만) (호주통계청, 2024.6 / 2025.4 기준 최신 정보)
정부 형태	영연방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양원제)
사법 체계	영국식 사법 체계를 따름
건국(독립)일	1901년 1월 26일
국가 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ing Charles III 영국 국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국왕은 상징적 존재로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며 연방정부는 연방총독(Governor-general), 주 정부는 주 총독(Governor)이 영국 국왕을 대리해 연방 및 각주를 대표함 ○ Anthony Albanese 총리 (32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5월 3일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도적인 의석수 확보로 재집권 성공 (참고: 노동당은 중도좌파 진보성향, 자유국민연합당은 중도우파 보수성향) - 호주는 의원내각제로 총리 임기 없음

<호주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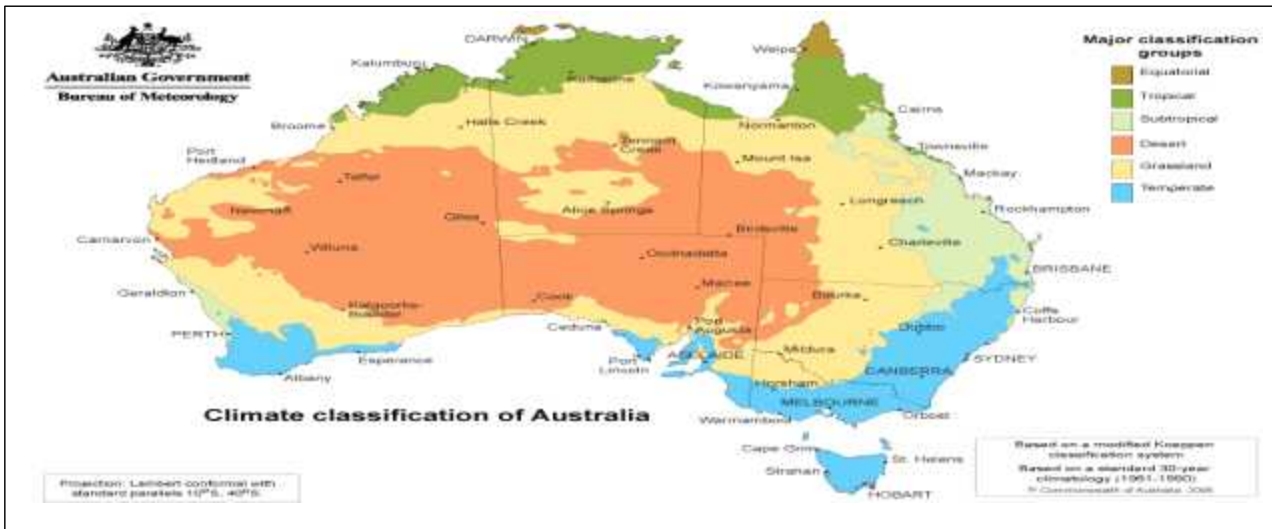
2. 국기와 국장

	<p>○ 호주의 국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측) 유니언 잭 : 영연방의 일원임을 상징 - (하단) 칠각 별 : 연방의 별(Star of Federation) * 호주 6개 주와 준주를 뜻하는 7각 별 - (우측) 5개의 별 : 남십자성을 상징 * 남반구에서만 볼 수 있는 별자리
	<p>○ 호주의 국장(Coat of Arms of Australi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의 7개 각을 가진 별은 연방의 별 (Commonwealth Star)로 6개의 주와 테리토리를 상징 -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 및 조류인 캥거루와 에뮤는 진보를 의미 - 배경의 나무는 노란색 아카시아 꽃나무로 호주 국화이며 호주 국가 색상인 금색, 초록색이 여기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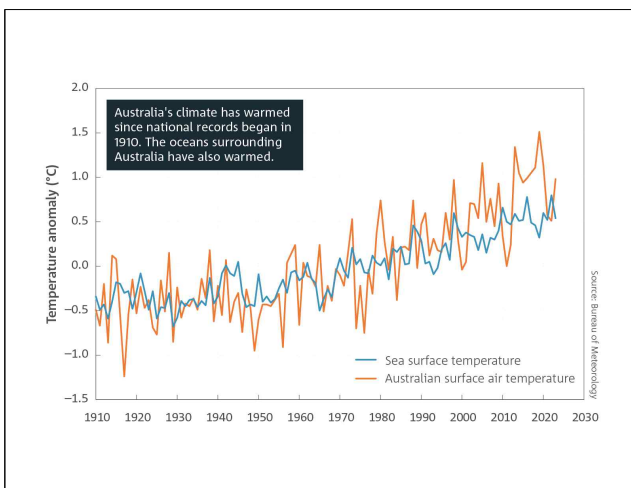
3. 기후

- 호주는 국토의 39%가 열대, 61%는 온대 기후대에 속함. 서부의 40%와 북부의 80%는 열대성, 남부는 온대성, 중앙부는 대륙성 사막기후
- 연평균 강수량은 483mm로 세계 6대주 중 가장 건조하며, 남반구에 위치한 관계로 북반구와는 정반대의 계절 순환을 나타내고 있음
- 호주는 1910년 기상관측 이래 연평균 기온이 1.44 ± 0.24 도 상승했으며 이상 고온, 폭우 등 급격한 날씨변화의 빈도가 잦아지고 강도도 세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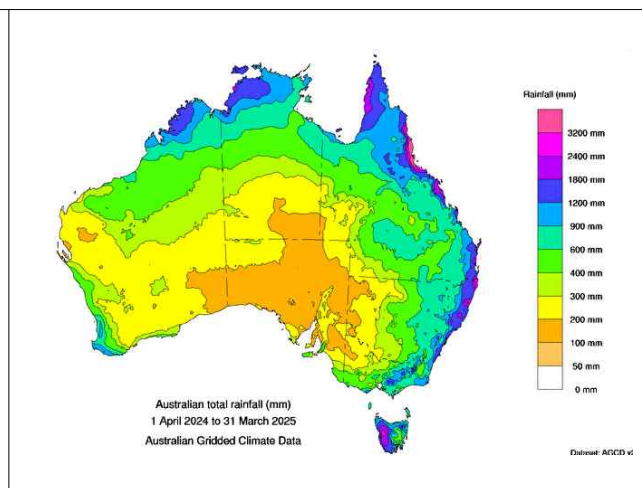
<호주 기후 구분>



<호주 기온 변화>



<최근 1년 호주 강수량>



자료: 호주 기상청(2025)

II. 호주 역사·정치·사회

1. 호주의 역사

- (~1700년대) 유럽인 출현 이전 원주민 시대
 - 최초의 호주 원주민(Aborigine)들은 아시아 남동부 해안이 호주 대륙과 가깝게 근접하였던 4~7만 년 전 동남아시아에서 이주해 왔으며 고대 인류와 DNA가 가장 비슷함. 호주 원주민들은 수백 개의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며, 유럽 정착민들이 들어오기 이전의 원주민 수는 60~100만 명 정도로 추정
 - 유럽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당시, 호주 원주민들은 사유재산에 대한 개념이 전무했으며 이에 1788년부터 백인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
- (1800~1900년) 영국 영토로 선언 이후 이민 시대 시작
 - 17세기 초 네덜란드인 및 포르투갈인에 의해 호주 대륙이 발견되기 시작하였으며 1688년 영국인 윌리엄 담피아가 대륙 북서부 해안에 상륙하고, 1770년에 영국인 선장 제임스 쿡이 호주 동부 해안인 보타니 베이에 상륙, 영국 영토로 선언
 - 1788년 영국 아서 필립 함장은 11척의 선박에 1,030명(이 중 736명이 죄인)의 1차 이주민을 호주로 인솔하여 죄인 유배지를 건설함. 1823년부터는 유배지에서 식민지로 전환되었고 1840년부터 죄인 이민이 점차 자유 이민으로 대체
 - 1850년대 골드러시 기간 중 중국인 유입이 급속히 증가, 1857년도에는 그 숫자가 23,623명에 달해, 중국인들이 유럽인을 하인 계급으로 타락시킨다는 공포가 팽배해지고 급기야 백인들이 백호주의 법을 제정하는 계기가 됨
- (1901~1999년) 연방 국가로 독립 후 다양한 출신의 이민 국가로 변화
 - 호주 연방법이 1900년 7월 빅토리아 여왕의 승인을 받고 1901년 1월 1일 6개의 식민지가 연합해 영연방을 설립함. 1913년 캔버라를 연방의 수도로 지정 후 1927년부터 천도가 시작되었으며 1931년 영국으로부터 완전 자치를 승인받음
 - 1942년 외교권과 국방권을 얻어 자치령에서 독립국으로 발전하였고 제1차, 제2차 세계 대전에 뉴질랜드와 참전하였으며 1956년 멜버른 올림픽을 개최함
 - 1962년에는 원주민 참정권을 인정하고 1971년 OECD에 가입했으며 1973년에는 백호주의를 폐지, 1975년 인종 차별 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이민이 자유로워져 인구가 급증

○ (2000~2024년) 아·태지역 경제 선진국으로 성장

- 2000년 역대 두 번째로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개최하였고 2008년 자유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당시 총리 케빈 러드가 호주 원주민, 도둑맞은 세대에게 대국민 사과함
- 2010년 6월 24일, 제27대 총리로 줄리아 길라드가 여성 최초로 선출되고 2012년 OECD 조사에서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선정됨
- 2018년 8월 24일 호주연방 총선에서 승리한 중도우파 성향의 자유·국민연합당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이 30대 총리로 취임
- 2019년 말 역사상 최악의 산불,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2분기 경기 불황을 선언했지만 2020년 3월 20일 국경을 봉쇄하고 내수 경기회복에 주력한 결과 2020년 3분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섬
- 2022년 5월 21일 호주연방 총선에서 승리한 노동당 앤서니 앨버니지 (Anthony Albanese)가 31대 총리로 당선되어 현재에 이름

<호주의 역사적 순간들>

		
초기 원주민 거주 시대	1770년 제임스 쿡, 영국 영토 선언	1850년대 골드러시
		
1901년 1월 1일 독립	1956년 멜버른 올림픽 개최	1959년 오페라하우스 완공
		
2008년 호주 총리, 대국민 사과	최초의 여성 총리, 줄리아 길라드	2019년 말, 산불

2. 호주의 정치 체계 및 현황

- 영국 국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 국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왕을 대신해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호주의 독립성을 보다 강조하고 있음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 호주 정부 시스템은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 지역 의회 순이며 각각의 수장은 연방 총리(Prime Minister), 주 총리(Premier), 지역 자치장(Mayor)임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의회의 주요기능은 행정부 구성, 입법 정부예산 의결, 국민의사 대변 및 행정부 행위 감시이며 법안은 상·하 양원에서 모두 통과되고 총독이 승인해야만 법으로 성립됨. 세입과 조세에 관련된 법안(하원에 반드시 먼저 제안될 필요)을 제외한 모든 법안은 상원과 하원 어느 쪽에서도 먼저 제안이 가능
- 국내정치 현황
 - 2025년 5월 3일에 열린 제48회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은 150석 중 91석*을 확보하며 압도적인 승리를 거둠. 현 호주 총리이자 노동당 당수인 앤서니 알버니지는 2004년 총선에서 승리한 후 2007년까지 재집권한 존 하워드 전 총리 이후 21년 만에 재선에 성공한 첫 총리로 기록됨. 알버니지는 2019년, 노동당 당수 빌 쇼튼의 사임 후 당 대표로 선출되었고, 2022년 총선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자유국민연합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바 있음(*2025. 5. 7 집계 기준)
 - 입헌군주제와 의원내각제의 정치 및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는 호주는 유권자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대통령과는 달리 총리는 직접 선거를 거치지 않고 다수당의 당수가 취임하게 되어 당수를 선출하는 당내 선거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임. 따라서 의원내각제로 운영되는 호주는 총리의 임기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

3. 호주의 사회 현황

○ 사회 구성원 특징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호주 인구는 약 2,731만 명으로 회계연도 2023/24년 기준 전년 대비 1.8% 증가. 가장 빠른 인구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서호주로 전년 대비 2.5% 증가, 빅토리아주(2.1%)와 퀸즐랜드주(2.0%)가 뒤를 이음. 동일 기간 태즈메이니아는 0.3% 증가에 그치며 가장 낮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
- 2006년 전체 인구의 6%에 불과했던 아시아계 비중이 2050년에는 약 21%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 현재 아시아계 호주는 호주 전체 인구의 14.1%를 차지하고 인도, 중국, 필리핀 커뮤니티가 이민자그룹에서 상위권을 점유. 호주의 인도계 이민자는 84.6만명, 중국계 이민자는 65.6만명, 필리핀계 이민자는 36.2만명, 한국계 이민자는 11.5만명, 일본계 이민자는 5.6만명
- 중국계 호주는 호주에서 영국, 호주, 아일랜드에 이어 5번째로 큰 인종 계통 (Ancestry) 구성원으로 이러한 다문화 사회가 호주 소비시장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

○ 근로환경

- 호주는 전 세계 중에서도 시간당 임금이 높은 나라들 중 하나로 회계연도 2024/25년 변경된 최저임금 기준에 의해 2024년 7월 1일부 전년보다 3.75% 인상된 시간당 최저임금 24.10 호주달러가 적용
- 호주 노동법상 근로자의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은 주 38시간이며 이외에 추가 근무시간을 갖기도 하나 이 경우, 추가근무 수당이 지급.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연 4주의 연차 휴가 및 연 10일 정도의 병가를 가지며 1년 이상의 연속 근무를 마친 모든 피고용인은 출산·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 복지환경

- 호주의 공공 건강보험 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로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건강보험위원회가 그 비용의 85%를 상환하도록 하거나 의사가 직접 벌크-빌링(bulk-billing: 정부가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의 차액을 지불)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이를 통해 공공병원에서 환자가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운영 중
- 호주의 사회보험제도는 호주정부기구인 센터링크(Centrelink)에 의해 관리되며 실업급여, 구직수당, 그 외 복지수당 지급을 관리

Ⅲ. 호주 경제·무역·투자

1. 호주의 경제

(1) 주요 경제지표

지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제성장률 (%)	2.7	1.5	1.0 (연간 추정치)	2.1 (연간 전망치)
명목 GDP (십억US\$)	1,724	1,742	1,795 (연간 추정치)	1,815 (연간 전망치)
1인당 명목 GDP (US\$)	65,862	65,874	67,214 (연간 추정치)	67,463 (연간 전망치)
물가상승률 (%)	7.8	4.1	3.2 (연간 추정치)	2.1 (연간 전망치)
실업률 (%)	3.5	3.8	4.0	4.1 (연간 전망치)
외환보유고 (백만AU\$)	56,797	56,791	63,658	65,443 (2025.3)
정부부채 (% of GDP)	33.4	33.7	33.9	35.5 (연간 전망치)
이자율 (%)	3.1	4.35	4.35	4.1 (2025.4)
총 수출액 (백만US\$)	412,683	371,316	340,813	346,100 (연간 전망치)
총 수입액 (백만US\$)	289,047	274,845	283,586	304,900 (연간 전망치)
무역수지 (백만US\$)	123,636	96,471	57,227	41,200 (연간 전망치)
투자진출 (십억AU\$)	3,653	3,823	4,317	N/A (26. 5월 발표 예정)
직접투자진출 (십억AU\$)	967	1,039	1,199	
투자유치 (십억AU\$)	4,597	4,660	4,971	
직접투자유치 (십억AU\$)	1,147	1,180	1,280	

주: 경제성장률은 실질 GDP(전년대비 증감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실업률, 외환보유고, 이자율은 12월 기준, 정부부채는 회계연도(6월) 기준, 투자 통계는 누계 기준
 자료: IMF, 호주 통계청, 호주 준비은행, Parliament of Australia, Global Trade Atlas, EIU, UNCTAD Stat, Trading Economics, 2025-26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2) 주요 경제특징

○ 지역에 따른 인구 및 경제 활동 집중

- 동부 3개 주(뉴사우스웨일스주, 빅토리아주, 퀸즐랜드주)가 전체 인구의 77.4%, GDP의 72.5%를 점유

<호주 주요 주별 GDP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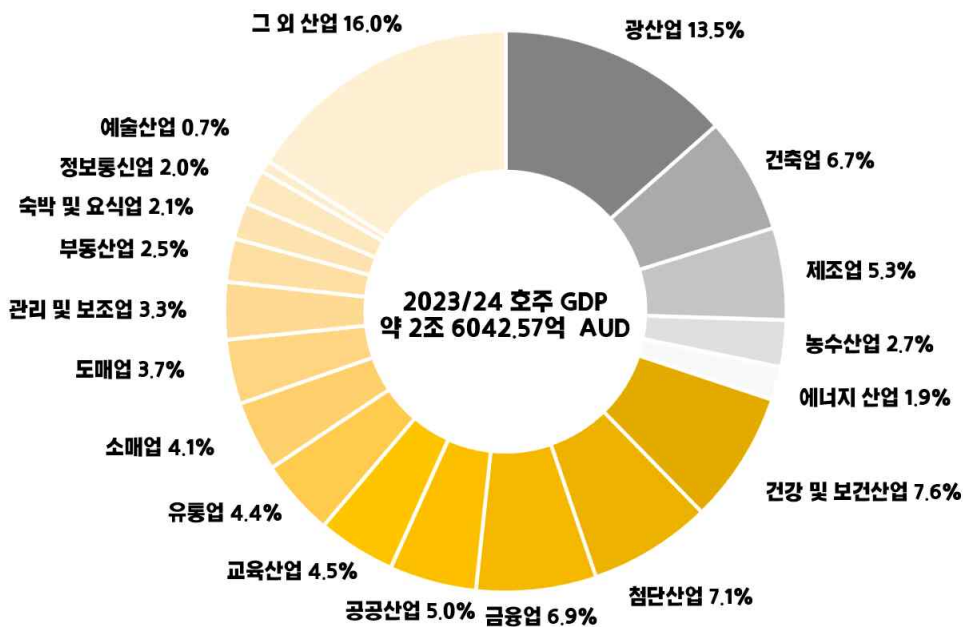
주(State)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퀸즐랜드	기 타
GDP 비중 (인구)	31.2% (851만 명)	25.7% (701만 명)	20.5% (561만 명)	22.6% (617만 명)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4)

○ 산업별 GDP 비중

- 호주는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반면, 서비스업이(금융, 의료, 교육, 관광) 전체 GDP의 약 70%를 차지하고 그 외 광업, 에너지, 농·축산업이 발달

<호주의 주요 산업별 GDP 기여 비중>



주: 2024년 회계연도 기준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1)

- **(농·수산·임업)** 총 생산량의 약 70%를 수출하며 전체 GDP의 2.7%를 점유
 - 농·수산·임업 총수출의 86%는 아시아 8개국(중국,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시장으로 수출됨
 - 2024-25년 호주의 농업 부문 생산 가치는 지난해 대비 강수 조건 완화로 인한 생산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4%가량 증가하여 862억 호주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
 - 호주 정부의 집권당 교체 이후 중국의 무역 갈등이 다소 완화되어 보리 등의 농작물에 대해 수출을 재개하였으나 호주의 농축산업 교역 파트너 다변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음

☞ 2024-25년 호주의 주요 농목축 자원 예상 생산 규모

. 밀 : 104억 호주달러	. 설탕 : 22억 호주달러	. 소고기 : 157억 호주달러
. 보리 : 51억 호주달러	. 와인포도 : 9.2억 호주달러	. 양고기 : 44억 호주달러
. 카놀라 : 41억 호주달러	. 우유 : 55억 호주달러	. 가금류 : 39억 호주달러

주: 2024-25년 예측치

자료: 호주농수산환경부(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2024)

- **(광업)** 호주는 석탄, 철광석, 원유뿐만 아니라 핵심광물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기준, 호주 전체 수출액 약 3,408억 달러 중 자원·에너지 수출이 전체의 64% 비중을 차지함 (HS Code 27, 26 기준)
-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중동사태 등의 여파로 호주의 철광석, 알루미늄 등 원자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는 듯했으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의 부동산 침체 및 지방 정부 부채 급증 등으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 및 수요 감소로 인해 소폭 감소 추세
- 전기자동차 사용 확대와 함께 이차전지 수요 증가로 니켈, 코발트, 리튬 등의 생산 활동이 활발하며 이에 따른 핵심광물 수출도 늘어날 전망

☞ 호주의 주요 광물자원

. 철광석 (Iron Ore) : 매장량 세계 1위(31%), 생산량 세계 1위(38%)
. 석탄 (Black Coal) : 매장량 세계 4위(9%), 생산량 세계 5위(6%)
. 매장량 세계 1위 : 금(21%), 금홍석(66%), 바나듐(49%), 납(37%) 우라늄(32%), 아연(28%) 등
. 기타 : 니켈, 코발트, 텅스텐, 리튬, 바나듐 등 매장량 세계 2위

주: 2023년 12월 집계 기준

자료: Australia's Identified Mineral Resources(2024)

- (제조업) 2024년 기준, GDP 기여 비중 5.3%나 첨단 기술 적용으로 국가 주요 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부상
- 호주는 높은 임금과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생산비용 및 물류비용이 높아 전통적인 제조업은 쇠퇴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환경 개선으로 소량 생산하더라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첨단 제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함
-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드러난 공급망의 높은 해외 의존도,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수급 차질에 따라 국내 제조업의 선진화를 강화하고자 2019년 4차 산업 성장 계획 Industry 4.0에 이어 2020년 제조업 현대화 전략(Modern Manufacturing Strategy)을 발표하고 15억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함
- 호주 첨단 제조업은 2030년까지 호주 경제에 3,000억 호주달러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호주의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점 분야		
· 자원 기술 및 핵심 광물	· 식음료	· 방위
· 재활용 및 청정에너지	· 의료·바이오	· 우주항공

자료: 호주 연방정부(Commonwealth of Australia 2021)

○ 주요 유망산업

-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30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가운데, 호주 정부는 2022년 6월 기존 26~28% 수준이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43%로 상향 조정. 이후 2025년 연방총선 공약을 통해 알버니지 총리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82%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제시.
- 2023년 3월에는 연방정부의 주력 기후 대응 정책인 셰이프가드 매커니즘(safeguard mechanism) 개혁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함에 따라 2030년까지의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가 법제화
- 호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 전기차 사용 증진을 적극 추진할 전망이며, 특히 전기차 수입 관세 인하 및 전기차에 대한 특별 세금 혜택 제공 등 구체적 지원 정책을 개진할 예정
- 2024년 11월, 정부는 의회에서 제조업과 청정에너지 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신규 법안(미래호주산법, Future Made in Australia)을 통과시키며 넷제로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할 계획
- 그 외 인프라, 의료바이오, 방산, 항공·우주 등의 분야가 유망 성장산업으로 전망

(3) 호주의 경제 동향

- 2024년 높은 금리로 인한 가계 소비 둔화와 상대적 높은 실업률 공존, 저조한 성장세
 - (GDP) 2024, 호주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하여 단 1%의 성장세를 보이며, 1991-9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수준을 기록함. 2025년에는 소비자 물가안정 및 내수 회복의 영향으로 2% 대의 경제 성장이 기대됨.

<호주 GDP 성장 동향 및 전망>

기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성장률(%)	1.0	2.1	2.0	1.9

주: 2024년 성장률은 추정치, 2025년과 2026년은 전망치

자료: EIU(2025.4)

- (금리) 호주 중앙은행은 2022년 5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존 0.1%의 금리를 0.35%로 0.25%p 인상, 6월부터 12월까지 0.5~0.25%p씩 인상을 단행. 2023년에는 5차례 0.25%p 인상 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35%로 동결. 2025년 2월, 4년여 만에 0.25%p 인하 실시, 4월 현재 4.10%의 기준금리 유지
 - * 금리: 0.75%(’19.10) → 0.50%(’20.3) → 0.25%(’20.3) → 0.10%(’20.11) → 2.85%(’22.11) → 3.1%(’22.12) → 3.35%(’23.2) → 3.60%(’23.3) → 3.85%(’23.5) → 4.10%(’23.6) → 4.35%(’23.11) → 4.10%(’25.2)
- (실업률) 2024년 2월 3.7%까지 하락한 호주 실업률은 연중 상승세를 보이다 7월 4.2%까지 상승했지만, 2025년 4월 현재 4.1%의 인정적 수준을 유지
 - * 실업률: 6.6%(’20.12) → 4.2%(’21.12) → 3.4%(’22.12) → 3.9%(’23.12) → 4.0%(’24.12) → 4.1%(’25.4)
- (물가상승률) 2025년 3월 호주 물가상승률은 2.4%로 지난 분기와 같았으며, 근원 인플레이션은 2.9%로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이는 호주 중앙은행의 목표 범위인 2~3%에 부합. 주류 및 담배(6.5%), 교육(5.7%) 등이 상승한 반면, 해외여행 및 숙박(-7.6%), 자동차 연료(-5.1%)는 하락.
- (소비동향) 2025년 2월 기준 호주의 가계 지출은 전년도 동기 대비 3.3%의 증가율을 보임. 특히 레크레이션 및 문화생활, 식품에 대한 지출이 전월 대비 각각 0.9%와 0.6% 증가했으며, 주류 및 담배(-1.4%)에 대한 소비는 타 항목들과 반대로 소비가 감소
- (환율) 2024년 7월, 중국 경제 둔화와 일부 호주 원자재 기업의 생산 중단으로 호주 달러는 0.64달러로 하락. 2025년 초에는 예상보다 낮은 3분기 GDP 성장률과 미국 대선 결과로 경제 불확실성 확대가 영향을 미치며 5년 만에 최저 수준인 0.62달러를 기록.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전면적 관세 정책으로 환율이 잠시 0.59달러까지 하락했으나, 5월 초 현재 0.64달러를 유지

2. 호주의 무역

(1) 주요 순위

<2024 호주 10대 수입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총 수입액	283,586	-
1	중국	72,765	-
2	미국	33,395	-
3	일본	16,632	1 ↑
4	한국	16,019	1 ↓
5	태국	13,323	-
6	독일	12,150	1 ↑
7	말레이시아	11,400	1 ↓
8	싱가포르	9,916	-
9	베트남	7,788	-
10	인도	7,548	2 ↑

<2024 호주 10대 수출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국가명	금액	비고
	총 수출액	340,813	-
1	중국	117,747	-
2	일본	46,489	-
3	한국	25,179	-
4	인도	16,382	-
5	미국	15,658	1 ↑
6	싱가포르	12,223	1 ↑
7	대만	12,154	2 ↓
8	인도네시아	8,371	2 ↑
9	뉴질랜드	8,256	1 ↓
10	홍콩	7,805	3 ↑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2024 호주 10대 수입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자동차 및 부품	42,566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	40,799
3	광물성 연료	37,426
4	전기·전자기기	31,324
5	의약품	10,906
6	광학·영상·의료기기	10,054
7	귀금속류	8,951
8	플라스틱류	7,232
9	철·철강제품	6,790
10	가구류	5,148

<2024 호주 10대 수출품목>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품목명	금액
1	광물성 연료	112,597
2	광물	95,790
3	귀금속류	25,621
4	육류	13,945
5	곡류	8,224
6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7,492
7	원자로·보일러·기계류	5,561
8	알루미늄 제품	4,681
9	구리 제품	4,342
10	전자 기계 및 부품	4,148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2) 교역 동향

- 호주 교역 규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다 2023년부터 내림세 전환
 - 2024년 교역액은 6,244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 감소
 -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對호주 4위 교역국으로 교역액은 전년 대비 -6.8% 감소한 412억 달러를 기록
 - 호주의 주요 5대 수출국 중 미국과 인도를 제외한 중국, 일본, 한국 수출이 모두 하락해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무역 규모가 전년 대비 감소

<호주 교역 규모 및 교역 대상국>

(단위: 백만US달러)

순위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453,966	592,585	701,730	646,253	624,399
1	중국	159,837	202,283	197,156	204,375	190,511
2	일본	42,217	61,657	97,056	74,472	63,121
3	미국	36,841	37,712	43,184	44,702	49,053
4	한국	22,313	36,300	54,394	44,183	41,198
5	인도	10,665	20,614	27,298	22,698	23,929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 호주의 수출은 2023년부터 글로벌 원자재 공급 과잉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수출액도 하락
 - 2024년 호주의 최대 수출품인 원자재의 가격이 지속 하락하면서 2024년 총수출액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3,408억 달러를 기록
- 호주의 수입은 지속 상승세를 이어오다 2023년에 소폭 하락했지만, 2024년에는 전년 대비 소폭 회복세를 보임
 - 호주의 총 수입액은 2023년 전년 대비 약 -4.9% 감소한 2,748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2024년에는 2,836억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3.2% 상승
- 호주의 무역수지는 중국 및 일본으로의 수출이 감소하면서 2024년 대폭 하락
 - 2022년 호주는 전년 대비 27.3% 증가한 1,236억의 흑자를 보였지만,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2.0% 감소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40.8% 감소한 572억 달러의 흑자 기록

<호주의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US달러)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	250,796	344,865	412,683	371,445	340,813
수입	203,170	247,719	289,047	274,808	283,586
무역수지	47,625	97,146	123,636	96,637	57,227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3) 수출

○ 주요 수출품목

- 호주 최대 수출품인 광물성 연료(석탄, 석유 등)는 2023년부터 원유 가격 하락으로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4년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130억 달러를 기록
- 광물 수출액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7.8% 하락한 958억 달러를 기록
- 특히 귀금속류의 수출은 전년 대비 19.9% 이상 증가하며 대폭 증가했으며, 이는 2024년 세계 경제 성장 불확실성으로 금 가격이 상승한 데 기인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전체	412,683	100.0	19.7	371,445	100.0	-10.0	340,813	100.0	-8.23
1	광물성 연료	174,951	42.4	83.6	130,265	35.1	-25.5	112,597	33.0	-13.6
2	광물	101,165	24.5	-23.2	103,916	28.0	2.7	95,790	28.1	-7.8
3	귀금속류	19,353	4.7	-6.2	21,369	5.8	10.4	25,621	7.5	19.9
4	육류	11,395	2.8	3.8	11,694	3.2	2.6	13,945	4.1	19.3
5	곡류	13,528	3.3	37.7	12,927	3.5	-4.5	8,224	2.4	-36.4
6	무기화학물 및 희토류	7,238	1.8	14.4	6,260	1.7	-13.5	7,492	2.2	19.7
7	원자로보일러기계류	4,861	1.2	5.7	5,254	1.4	8.1	5,561	1.6	5.9
8	알루미늄 제품	4,878	1.2	14.7	4,273	1.2	-12.4	4,681	1.4	9.6
9	구리 제품	3,925	1.0	2.9	4,086	1.1	4.1	4,342	1.3	6.3
10	전기·전자기기	3,540	0.9	-0.2	3,872	1.0	9.4	4,148	1.2	7.2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 주요 수출국

- 2024년 호주의 주요 수출국은 중국, 일본, 한국으로 상위 3개국의 전체 수출의 55% 이상을 차지
- 상위 10위 수출국 중 중국, 일본, 대만의 수출 점유율은 소폭 감소했지만, 이외 7개 국가 모두 수출 점유율이 소폭 증가
- 對한국 수출액은 2023년에 전년 대비 -25.1% 감소해 267억 달러 수출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전년 대비 -5.9% 감소한 252억 달러 기록

<주요 수출국>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국가	2022		2023		202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체	412,683	100.0	371,445	100.0	340,813	100.0
1	중국	119,908	29.1	135,007	36.3	117,747	34.5
2	일본	80,010	19.4	57,091	15.4	46,489	13.6
3	한국	35,715	8.7	26,744	7.2	25,179	7.4
4	인도	20,388	4.9	16,689	4.5	16,382	4.8
5	미국	13,864	3.4	13,862	3.7	15,658	4.6
6	싱가포르	13,114	3.2	14,588	3.9	12,223	3.6
7	대만	20,631	5.0	11,382	3.1	12,154	3.6
8	인도네시아	8,691	2.1	7,765	2.1	8,371	2.5
9	뉴질랜드	8,902	2.2	8,278	2.2	8,256	2.4
10	홍콩	5,192	1.3	6,475	1.7	7,805	2.3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4) 수입

○ 주요 수입품목

- 2024년 기준, 호주 수입품목 중 자동차 및 부품의 수입은 전년 대비 소폭 (-1.0%) 하락했지만, 여전히 호주의 최대 수입품목으로 자리 잡음
- 원자로·보일러·기계류는 2023년 호주의 3위 수입품목이었지만, 수입액은 전년 대비 5.4% 상승하며 2024년 2위 수입품목으로 올라섬
- 반면 광물성 연료의 수입은 원유 가격이 하락과 함께 수입액이 -7.0% 감소하며, 2023년 2위에서 2024년 3위로 하락
- 전기·전자기기와 철·철강 제품 수입액은 전년 대비 각각 8.3%, 13.9% 증가하며, 큰 성장세를 보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	2022			2023			2024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금액	비중	증감
	전체	289,047	100.0	16.7	274,808	100.0	-4.9	283,586	100.0	3.2
1	자동차 및 부품	35,731	12.4	7.5	42,988	15.6	20.3	42,566	15.0	-1.0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	39,288	13.6	7.1	38,705	14.1	-1.5	40,799	14.4	5.4
3	광물성 연료	45,546	15.8	76.0	40,236	14.6	-11.7	37,426	13.2	-7.0
4	전기·전자기기	29,465	10.2	8.4	28,926	10.5	-1.8	31,324	11.0	8.3
5	의약품	13,036	4.5	21.8	11,098	4.0	-14.9	10,906	3.8	-1.7
6	광학·영상·의료기기	9,416	3.3	1.9	9,823	3.6	4.3	10,054	3.5	2.4
7	귀금속류	8,056	2.8	5.3	8,667	3.2	7.6	8,951	3.2	3.3
8	플라스틱류	7,738	2.7	6.3	6,742	2.5	-12.9	7,232	2.6	7.3
9	철·철강제품	6,400	2.2	13.6	5,962	2.2	-6.8	6,790	2.4	13.9
10	가구류	5,685	2.0	2.2	4,791	1.7	-15.7	5,148	1.8	7.5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 주요 수입국

- 2024년 호주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 미국, 한국, 일본으로 상위 4개국이 전체 수입의 약 49%를 차지
-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2024년 호주 전체 수입액의 25% 이상을 점유하며, 2위 수입국인 미국보다 수입 규모가 2배 이상 높음
- 코로나19로 인한 물류대란 이후 지리적으로 호주와 가까운 태국, 베트남, 인도 등에서의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로 상위 10대 수입국 중 미국, 독일을 제외한 8개국이 아시아에 위치
- 한국에서의 수입액은 2021년 94억 달러에서 2022년 약 2배 증가해 187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호주의 수입 대상국 순위 내 한국은 8위에서 3위로 큰 폭 상승한 바 있지만, 2024년에는 수입액이 -8.1% 감소하면서 수입 대상국 4위로 하락

<주요 수입국>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국가	2022		2023		2024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전체	289,047	100.0	274,808	100.0	283,586	100.0
1	중국	77,248	26.7	69,368	25.2	72,765	25.7
2	미국	29,319	10.1	30,840	11.2	33,395	11.8
3	일본	17,046	5.9	17,381	6.3	16,632	5.9
4	한국	18,679	6.5	17,439	6.3	16,019	5.6
5	태국	12,036	4.2	12,810	4.7	13,323	4.7
6	독일	11,414	3.9	11,986	4.4	12,150	4.3
7	말레이시아	11,810	4.1	12,359	4.5	11,400	4.0
8	싱가포르	13,510	4.7	10,757	3.9	9,916	3.5
9	베트남	6,476	2.2	6,488	2.4	7,788	2.7
10	인도	6,910	2.4	6,009	2.2	7,548	2.7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자료: Global Trade Atlas(2025.4)

(5) 한-호 무역 동향

□ 교역 동향

- 2024년 한국의 對호주 수출은 약 15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으며, 수입은 약 300억 달러로 8.7% 감소. 한국의 對호주 무역수지는 144억 달러 적자. 2025년에는 전년동기(1~3월) 대비 수출, 수입 각각 34.6%, 3.9%가량 감소하여 무역수지 약 49억 적자

<對호주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US달러, %)

구분	2022 규모(증감률)	2023 규모(증감률)	2024 규모(증감률)	2025.3 규모(증감률)
수출	18,753(92.3)	17,791(-5.1)	15,598(-12.3)	2,813(-34.6)
수입	44,929(36.5)	32,823(-26.9)	29,955(-8.7)	7,735(-3.9)
무역수지	-26,176	-15,032	-14,357	-4,922

주: 2025년 통계는 1~3월 누계 기준
자료: 한국무역협회(2025.5)

□ 주요 수출입 품목

○ (수출) 2024년 對호주 주요 수출품목 전반 감소 추세

- 2024년 호주 경제성장률이 둔화하며 대다수 품목의 수출이 감소했으며, 상위 10개 품목 중 기타자동차, 축전지, 합성수지를 제외하고 수출액이 감소
- 기타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공급이 증가하면서 2022년 수출 증가율은 3,418.8%, 2023년에는 121.9%, 2024년에는 466.1%로 대폭 증가세를 보임
- 미국의 원유 재고 급증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및 등유 수출액은 감소 추세

<주요 수출품목>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22		2023		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	18,753	92.3	17,791	-5.1	15,598	-12.3
1	경유	7,604	225.7	6,783	-10.8	5,715	-15.8
2	승용차	2,951	29.8	2,841	-3.7	2,341	-17.6
3	휘발유	1,656	100.3	1,619	-2.2	1,474	-9.0
4	제트유및등유	1,467	528.2	1,844	25.7	1,365	-26.0
5	기타자동차	57	3,418.8	127	121.9	721	466.1
6	축전지	194	-8.3	178	-8.5	216	21.7
7	철도차량	180	-16.5	180	0.2	162	-10.4
8	합성수지	129	-15.0	129	0.2	159	23.0
9	전기자동차	128	69.3	348	171.0	143	-59.0
10	화물자동차	128	30.6	157	22.7	139	-11.5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2025.4)

○ (수입) 2024년 한국의 주요 수입품목인 에너지 자원 수입이 감소하며 對호주 수입액 -8.7% 감소

- 전년 대비 천연가스(-19.6%), 유연탄(-20.7%)에 대한 수입이 대폭 감소했으며, 국제 유가는 하락했지만, 한국의 對호주 원유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수입액은 6.8% 증가
- 금 수입은 국제 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143.8% 대폭 성장을 보임
- 금속 자원에 대한 수입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알루미늄과 및 스크랩, 기타 금속 광물 모두 17.8%, 63.0%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임

<주요 수입품목>

(단위: 백만US달러, %)

순위	품목명	2022		2023		2024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	44,929	36.5	32,823	-26.9	29,955	-8.7
1	천연가스	15,077	161.6	8,905	-40.9	7,158	-19.6
2	유연탄	11,604	59.2	7,184	-38.1	5,698	-20.7
3	철광	5,513	-35.3	5,485	-0.5	5,497	0.2
4	원유	2,149	35.4	2,030	-5.6	2,167	6.8
5	가축육류	1,742	11.4	1,639	-5.9	1,669	1.8
6	금	595	-47.8	503	-15.4	1,227	143.8
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818	7.9	958	17.0	1,128	17.8
8	기타금속광물	543	-22.8	568	4.6	925	63.0
9	동광	1,296	-2.5	979	-24.4	601	-38.6
10	곡류	598	53.9	496	-17.1	461	-6.9

주: 순위는 2024년 기준, 증감률은 전년 대비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2025.4)

3. 호주의 투자

(1) 투자유치 동향

- 지난 3년간 호주 외국인 투자유치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24년 투자 유치액은 누계 기준 4조 9,706억 호주달러로 전년 대비 3,270억 호주달러 증가(호주통계청은 2001년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투자액 공시)
 - 호주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최대 투자유치국은 미국으로 누계 기준 1조 3,555억 호주달러를 기록(27.3%), 그 뒤를 영국, 벨기에, 일본 등이 이음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2024년 누계 기준 284억 호주달러로 20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 투자유치의 0.6%의 비중을 차지
 - 2024년 호주의 직접투자(FDI) 유치액은 810억 호주달러(2001~2024년 누계 기준 1조 2,804억 호주달러)

<2001~2024년 국가별 호주 투자유치현황(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합계	4,609.9	4,643.6	4,970.6	100.0
1	미국	1,094.5	1,152.1	1,355.5	27.3
2	영국	962.9	877.3	839.1	16.9
3	벨기에	359.4	379.2	386.1	7.8
4	일본	264.6	270.1	282.9	5.7
5	홍콩	146.7	154.3	180.8	3.6
6	싱가포르	149.7	142.4	144.8	2.9
7	룩셈부르크	88.7	104.4	114.1	2.3
8	캐나다	105.2	104.0	111.2	2.2
9	독일	53.8	55.7	89.8	1.8
10	네덜란드	90.7	91.6	88.9	1.8
20	한국	28.1	28.5	28.4	0.6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2001년~2024년 누계 투자유치액, 순위는 2024년 기준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5)

○ 호주 광업은 지난 3년간 가장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산업 분야

- 2024년 호주 광업에의 외국인 직접 투자액은 누계 4,077억 호주달러, 31.8% 차지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은 지난 5년간 투자유치 증가율 111.4%로 가장 높아

<2001~2024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유치현황(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업종	2022년	2023년	2024년		지난 5년간 증감률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합계	1,157.2	1,182.4	1,280.4	100.0	25.1
1	광업	380.0	400.0	407.7	31.8	11.9
2	금융 및 보험업	145.5	145.9	160.9	12.6	39.0
3	임대 및 부동산업	147.5	139.2	145.3	11.4	17.8
4	제조업	118.6	118.4	128.8	10.1	6.8
5	도소매업	74.7	78.0	75.0	5.9	22.2
6	정보통신 및 미디어	25.5	25.5	53.9	4.2	68.7
7	운송, 우편 및 창고업	29.4	32.9	37.9	3.0	47.0
8	전기·가스·수도·폐기물 처리업	24.5	23.2	26.9	2.1	0.7
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	16.6	25.9	2.0	111.4
10	건설업	21.5	20.1	21.1	1.6	8.0
11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10.7	11.0	11.2	0.9	26.1
12	행정지원 서비스업	6.0	6.1	8.2	0.6	-14.8
13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8	5.9	6.6	0.5	30.4
14	농업, 임업 및 어업	4.9	4.6	4.2	0.3	13.6
15	미분류	133.4	142.6	154.5	12.1	70.1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순위는 2024년 기준, 금액 공표 불가 업종 미포함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5)

(2) 투자진출 동향

○ 지난 3년간 호주 해외 투자진출 꾸준히 증가

- 호주의 2024년 투자 진출액은 누계 기준 4조 3,174억 호주달러로 전년대비 4,924억 호주달러 증가(호주통계청은 2001년부 연간 누계 기준으로 투자액 공시)
-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최대 투자진출국은 미국으로 누계 기준 1조 5,525억 호주달러를 투자해 전체의 36%를 차지, 그 뒤를 영국, 뉴질랜드, 일본 등이 따름
-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2024년 누계 기준 296억 호주달러로 18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체 호주 투자진출의 0.7%의 비중을 차지
- 호주의 해외 직접투자(FDI) 규모는 2024년 213억 호주달러(2001~2024년 누계 기준 1조 1,991억 호주달러)

<2001~2024년 국가별 호주 투자진출현황(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국가	2022년	2023년	2024년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합계	3,656.7	3,825.0	4,317.4	100
1	미국	1,068.0	1,196.9	1,552.5	36.0
2	영국	820.9	739.1	698.5	16.2
3	뉴질랜드	154.0	170.6	204.8	4.7
4	일본	126.0	133.6	165.3	3.8
5	캐나다	108.0	110.0	130.5	3.0
6	케이맨 제도	105.2	101.6	120.9	2.8
7	프랑스	81.0	91.0	103.3	2.4
8	싱가포르	74.2	74.5	78.3	1.8
9	홍콩	48.8	66.9	76.4	1.8
10	독일	77.4	74.7	75.9	1.8
18	한국	27.3	29.8	29.6	0.7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2001년~2024년 누계 투자진출액, 순위는 2024년 기준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5)

○ 2024년 호주 최대 투자 진출 분야는 금융, 보험 서비스업

- 호주의 금융 및 보험업에의 해외 직접 투자액은 누계 2,640억 호주달러로 22% 차지, 해당 부문 투자 진출은 지난 5년간 92.3% 확대, 가장 높은 증가율 기록
- 지난 5년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분야 59.6%, 광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39.2% 증가한 한편,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114.8%) 및 건설 부문(28.9%) 투자 진출은 감소

<2001~2024년 산업별 호주 직접투자진출현황(누계)>

(단위: 십억AU달러, %)

순위	업종	2022년	2023년	2024년		지난 5년간 증감률
		투자액	투자액	투자액	비중	
	합계	973.4	1,042.2	1,199.1	100	52.8
1	금융 및 보험업	204.6	214.6	264.0	22.0	92.3
2	광업	178.1	193.0	228.0	19.0	39.2
3	제조업	210.4	215.4	216.7	18.1	10.4
4	임대 및 부동산업	21.6	20.7	24.0	2.0	37.8
5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7.9	19.7	20.5	1.7	59.6
6	도소매업	6.3	7.7	8.7	0.7	3.1
7	건설업	8.0	7.4	7.7	0.6	-28.9
8	전기·가스·수도·폐기물 처리업	5.1	5.4	6.6	0.5	23.1
9	행정지원 서비스업	5.6	5.9	5.9	0.5	32.2
10	운송, 우편 및 창고업	4.1	4.0	4.0	0.3	5.9
11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	204	84	-53	0.0	-114.8

주: 통계 발표주기 연 1회(5월 중), 순위는 2024년 기준, 금액 공표 불가 업종 미포함
자료: 호주 통계청(ABS 2025.5)

(3) 한-호 상호 투자 동향

□ 한국의 對호주 투자

- 2024년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신고 114건, 신고액 10억 5,410만 달러, 투자액 8억 9,724만 달러
 - 한국의 對호주 투자는 광업,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고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6%, 신고금액은 224%, 투자 금액은 36% 증가
 - 투자 금액 기준 광업 20% 증가, 특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6%, 146%, 332% 대폭 상승
- 한국의 對호주 투자 누계(1980-2024)는 신고 2,703건, 신고액 280억 달러, 투자액 203억 달러
 - 업종별로는 광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126억 달러, 부동산업 26억 달러, 제조업 17억 달러, 금융 및 보험업 15억 달러 순임

<한국의 對호주 투자 추이>

(단위: 천US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신규 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	115	39	766,897	1,171,157
2011	93	31	4,162,023	1,381,770
2012	84	27	4,408,135	2,236,774
2013	84	24	1,716,083	2,793,313
2014	72	15	844,237	1,672,943
2015	79	13	679,032	899,448
2016	118	38	1,595,411	1,306,249
2017	93	23	532,524	698,443
2018	144	29	303,417	473,196
2019	120	34	879,751	785,003
2020	122	29	984,313	660,882
2021	128	28	2,261,423	1,178,457
2022	106	27	2,349,507	1,494,873
2023	78	20	324,858	661,793
2024	114	29	1,054,103	897,243
누계(1980~2024)	2,703	916	28,022,194	20,306,032

자료: 한국 수출입은행(2025.4)

□ 호주의 對한국 투자

- 2024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는 신고 53건, 신고액 2억 8,840만 달러, 투자액 8,889만 달러
 - 호주의 해외투자는 미국, 영국, 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에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국에 대한 투자는 1% 미만(2023년 0.8%)
 - 2024년 호주의 對한국 투자 비중은 서비스업,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신고건수는 예년 대비 112% 증가, 신고 및 투자 금액은 각 60%씩 감소

- 호주의 對한국 투자 누계(1962-2024)는 신고 785건, 신고액 60억 달러, 투자액 34억 달러
 -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대한 투자금액이 25억 달러, 서비스업 9억 4,367만 달러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을 일부 분야에 집중
 - 세부 분류 기준, 운송용 기계제조업에 대한 누적 투자금액이 23억 달러로 가장 높음

<호주의 對한국 투자 추이>

(단위: 천US달러, 건)

연도	신고건수	업체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2010	24	17	7,247	5,460
2011	22	18	90,186	4,401
2012	27	14	152,569	15,811
2013	22	9	50,491	27,539
2014	24	15	139,833	123,838
2015	31	16	85,193	27,046
2016	45	25	79,157	35,840
2017	26	12	142,330	35,665
2018	33	20	2,007,357	2,004,188
2019	27	16	107,573	54,296
2020	15	11	6,322	4,752
2021	22	12	125,242	53,279
2022	19	12	153,005	102,220
2023	25	14	721,536	55,417
2024	53	23	288,401	88,899
누계(1962~2024)	785	360	6,062,645	3,351,203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25.4)

□ 對호주 진출기업

○ 자원개발 및 현지 판매법인 중심 82개사 진출(2025년 4월 기준)

연번	진출분야	기업명(국문)	기업명(영문)	진출지역
1	공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NSW, VIC
2		한국가스공사	Kogas Australia	QLD, WA
3		한국관광공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NSW
4		한국광해광업공단	KOMIR Australia	NSW
5		한국전력공사	Korea Electricity Power Corp. Australia	NSW
6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NSW
7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사무소)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	NSW
8	건설	GS건설	GS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VIC

9		YG-1호주법인	YG-1	VIC
10		대구텍호주법인	TaeguTec Australia Pty Ltd	VIC
11		삼성물산(건설)	Samsung C&T Corp. Engineering & Construction	NSW, VIC
12		일진호주	Iljin Australia Pty Ltd	VIC
13		현대건설	Hyundai E&C	NSW
14		포스코건설	POSCO E&C Australia Pty Ltd	QLD
15		효성중공업	Hyosung Heavy Industries	NSW
16	자원개발	SK네트웍스자원	SK Networks Resources Australia	NSW
17		썬메탈코퍼레이션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QLD
18		포스코	POSCO Australia	NSW
19		한국중부발전	KOMIPOA Australia	NSW
20		한화마이닝	Hanwha Mining Services Australia	WA
21		현대제철	Hyundai Steel Company	QLD
22	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LG Energy Solution Australia	VIC
23		한화큐셀	Hanwha Q CELLS Australia	NSW
24		SK에너지솔루션	SK E&S Australia Pty Ltd	WA
25		그린사이언스	Green Science	VIC
26	자동차	기아자동차	Kia Motors Australia	NSW
27		현대자동차	Hyundai Motor Company Australia	NSW
28		KG모빌리티	SsangYong Australia	VIC
29	타이어	금호타이어	Kumho Tyre Australia	NSW
30		넥센타이어	Nexen Tire Sydney	NSW
31		한국타이어	Hankook Tyre Australia	NSW
32	자동차 부품	모트렉스	MOTREX	NSW
33		현대모비스	Mobis Parts Australia	NSW
34	전자	LG전자	LG Electronics Australia	NSW
35		삼성전자	Samsung Electronics Australia	NSW, VIC
36		쿠쿠전자	Cuckoo Oceania	NSW
37		주식회사 솔루엠	SOLUM Australia	NSW
38	전선	LS전선	LS Cable & System	NSW
39		대한전선	Taihan Electric Australia	NSW
40	종합상사	GS글로벌	GS Global Australia	NSW
41		LX인터내셔널	Bowen Investment (Australia)	NSW
42		롯데상사	LOTTE International Oceania	QLD
43		삼성물산상사	Samsung C&T Cooperation	NSW
44		포스코인터네셔널	POSCO International Australia	NSW
45		현대종합상사	Hyundai Australia	NSW
46	식품	농심	Nongshim Australia	NSW

47		CJ 뉴트라콘	CJ Nutracon Pty Ltd	QLD
48		CJ 제일제당	CJ Food	NSW
49		매일유업	Mail Australia Pty Ltd	VIC
50		애틀미	Atomy Australia	VIC
51		대상	Daesang Australia	NSW
52	의료기기	바텍글로벌	Vatech Medical	NSW
53		오스템	Osstem Australia	NSW, VIC
54		제이시스메디칼	NU28 Medical Aestehtics	VIC
55		인바디	Inbody Australia Pty Ltd	QLD
56	철도차량	현대로템	Hyundai Rotem	NSW
57	물류	글로벌비스	Glovis Australia	NSW
58		판토스	Pantos Logistics Australia	NSW
59		팬오션멜버른사무소	PanOcean Co. Ltd, Melbourne	VIC
60		한국선급	Korean Register Australia Pty Ltd	NSW
61		HMM	HMM Australia	NSW VIC
62	금융	KEB하나은행	KEB Hana Bank Sydney Branch	NSW
63		NH농협은행	NongHyup Bank	NSW
64		신한은행	Shinhan Bank	NSW
65		우리은행	Wooribank Sydney Branch	NSW
66		한국산업은행	The Korea Development Bank	NSW
67		현대캐피탈	Hyundai Capital	NSW
68	항공	대한항공	Korean Air	NSW
69		아시아나항공	Asiana Airlines	NSW
70	서비스	제일기획	Cheil Australia	NSW
71		이노션	Innocean Worldwide Australia	VIC
72	방위/방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anwha Aerospace Australia Pty Ltd	VIC
73	비료	슈퍼퍼트동부	Superfert Donbu	WA
74	헬스케어	셀트리온	Celltrion Healthcare Australia	NSW
75		코스맥스엔비티	COSMAXNBT Australia	VIC
76		유한양행	Yuhan ANZ	SA
77	IT	삼성SDS	Samsung SDS Global SCL Australia	NSW
78		한화비전	Hanwha Vision	VIC
79	뷰티	아모레퍼시픽	Amorepacific Australia	VIC
80	면세점	롯데면세점	Lotte Duty Free Australia	VIC
81	스마트팜	이수화학	ISU Chemical	QLD
82		그린플러스	Green Plus Australia	QLD

□ 對한국진출 주요 호주기업

연번	진출분야	기업명(영문)	비고
1	공기업	Austrade	호주무역투자대표부
2	자원개발	ASM (Australian Strategic Materials)	호주 광산기업으로 한국법인인 KSM메탈스 청주 오창공장에서 희토류를 금속화해 공급예정
3	에너지	Woodside energy	호주 대표 에너지/오일/가스 기업으로 한국에 지사설립
4	금융	Macquarie Bank	호주 대표 투자은행으로 부동산/재무적 다수 투자 진행
5		ANZ	호주 3대 은행 중 하나로 한국에 지사설립
6		Australian Ethical investment	재무적 투자자. 호주 내 투자금을 국내 자산운용사에 맡겨 수익 창출 중

IV. 시드니무역관 관할지역

1. 시드니무역관 관할지역

(1) 뉴사우스웨일스 주(NSW)

□ 일반 현황

- 면적 : 80만 km²
- 인구 : 851만명(호주 내 1위)
- 주도 : 시드니(Sydney)
- 주 수상(Premier) : Chris Minns
- 주요 도시 : 뉴카슬(Newcastle), 포트맥쿼리(Port Macquarie),
울롱공(Wollongong), 센트럴 코스트(Central Coast)

□ 주요 특징

- 호주의 역사가 시작된 금융, 상업, 문화, 관광, 교육의 중심지
 - 뉴사우스웨일스 주는 호주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 주 경제 규모는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의 국가 경제보다도 큰 것으로 추정됨.
 - 호주의 금융, 보험 산업의 45%, 문화 산업의 50%, 제조업의 33% 가량이 분포되어 있으며 호주 주요 기업들의 본사뿐만 아니라 호주 및 대양주에 진출해있는 다국적 기업들의 본사들도 다수 위치해 있음.
 - 동부 해안가를 따라 형성되어 있는 해변들은 호주를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호주인 들이 선호하는 주거, 여행, 레저 지역이며 내륙지역은 국립공원과 와인 농장들이 지역마다 분포되어 있음.
- 사계절 기후에 해변, 스키장, 온천까지 갖춘 지역
 - 북쪽과 남쪽 지역의 기후는 고도와 위치에 따라 편차를 보이며 뉴사우스웨일스 주 쪽으로 빅토리아 주 경계 근처의 Thredbo는 스키리조트로 유명하고 북쪽의 Byron Bay는 겨울에도 따뜻한 편임.

□ 주요 관광지



○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1957.1 발표된 설계공모에서 덴마크의 건축가 John Utzon이 당선되어 1959.3~1973. 9에 완공됨. 매년 평균 약 3,000여회의 행사와 200만명 가량의 관광객 유치. 구조는 지붕 2,194개의 조립식 콘크리트 조각 350km의 강철선 지붕 위 4,253개의 조립식틀 위에 1,056,000개의 타일이 배열, 지붕의 무게만 27,230톤임. 건물은 바다 밑 25m 까지 잠겨 있는 580개의 콘크리트 받침대가 지탱. 전체 넓이는 2.2헥타이고 건물자체는 1.8헥타임. 콘서트홀, 오페라 극장, 드라마극장, 연극관, 리셉션 홀 등으로 구성됨.



○ **하버 브리지 (Harbour Bridge)**

1932. 3. 개통, 시드니 거주자들은 "큰 옷 걸이"라 부름. 8차선 차도, 2차선 철도, 자전거 도로 및 도보용 도로로 구성, 길이 1,149m, 높이는 해발 134m, 하루 평균 20만대의 차량이 통과함. 양안 교각간 길이 503m, Arch 최고 높이 수면에서 134m이고, 수면과 교량 사이 평균 높이는 60m임. 통행료 연간 5천만 호주달러, Arch부문 수리예산 연간 5백만 호주달러임



○ **시드니 항 (Sydney Harbour)**

항구는 Middle Harbour, Port Jackson, Parramatta River, Lane Cove River, Iron Cove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Port Jackson이 중심수역임. 호주 이민 및 식민역사가 1778년 동 항만을 중심으로 시작됨. 맑은 수질과 굴곡으로 경관 수려, 외해와 완벽히 차단, 연중 폭풍우, 해일 피해가 전무하며, 조수간만의 차도 미미, 지형상 수심이 깊고, 해저가 모래암(Sand Stone)으로 되어 있어 항상 일정한 수심과 맑은 수질 보존이 가능함.



○ **하이드 파크 (Hyde Park)**

하이드 파크는 시드니에서 가장 큰 공원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건설 됨. 주변에는 NSW주 법원, 세인트 제임스 교회, 세인트 메리 대성당, 호주 박물관 등이 위치함. 공원 중앙을 파크 스트리트가 가로고 있어 하이드 파크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음. 식민시대 초기 스포츠와 여가를 즐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크리켓, 경마 등의 경기가 열렸음.



○ **왕립 식물원 (Royal Botanic Garden)**

시드니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온하고 녹색 분위기가 가득한 곳으로서 Harbour Bridge, Opera House 와 시내를 관광할 수 있음. 1816년에 설립됨. 면적은 약 54헥타이고, 시민, 관광객의 산책 공원으로 애용됨.



○ **세인트 메리 대성당 (Saint Mary's Cathedral)**

1868년에 짓기 시작하여 2000년에 완공된 성당으로 하이드 파크 옆에 위치함. 호주 초기 영국에서 추방되어 온 죄수들의 숙소 근처에 지어졌으며 성모 마리아를 기리기 위하여 이름을 세인트 메리로 지었음. 중세고딕양식을 재현한 구조로 높은 천정과 스테인글라스 창문, 2개의 첨탑들로 이루어져 있음. 성당의 규모는 길이 107m, 첨탑의 최고 높이 74.6m임.



○ **블루 마운틴 (Blue Mountain)**

시드니 서쪽 약 100km에 소재하는 호주의 그랜드 캐년 이라 불리는 대협곡임. 급변하는 일기에 따른 풍경이 장관으로 세계 유명화가들의 주요 소재임. 주요 관광 포인트는 세자매봉(Three Sister), 에코 포인트(Echo Point), 오솔길과 대협곡 및 폭포, 수많은 야생조류 및 갖가지 식물군, 케이블 관광열차 등이 있음.

□ 주요 음식점

- (호주식) 킹스레이스 스테이크하우스 (Kingsleys Steakhouse)
 - 주소 : 29A King Stree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95 5080
 - 홈페이지 : www.kingsleysauststeak.com.au

- (호주식) 더 미트 앤 와인 코 (The Meat and Wine Co)
 - 주소 : Ground level, 100 Barangaroo Avenue, Barangaroo NSW 2000
 - 연락처 : +61 2 8629 8888
 - 홈페이지 : <https://themeatandwineco.com/>

- (호주식) 카페 시드니 (Cafe Sydney)
 - 주소 : 5 Sydney Customs House, 31 Alfred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51 8683
 - 홈페이지 : <https://cafesydney.com/>

- (한식) 본가 (Bornga Australia)
 - 주소 : Level 1 78 Harbour St, Haymarket NSW 2000
 - 연락처 : +61 417 054 555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BorngaAustralia/>

- (한식) 코기 (KOGI Korean BBQ)
 - 주소 : Level 3 Market City, 9-13 Hay St, Haymarket NSW 2000
 - 연락처 : +61 412 054 339
 - 홈페이지 : <https://kogi.com.au/>

- (일식) 야마 (Yama)
 - 주소 : Shop 2-04 Level 2 QVB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69 0080
 - 홈페이지 : www.yama.com.au/

- (중식) 로투스 더 갤러리스 (Lotus The Galleries)
 - 주소 : The Galleries, Level 1, 500 George St Sydney, NSW 2000
 - 연락처 : +61 2 9247 6868
 - 홈페이지 : <https://lotusdininggroup.com/the-galleries/>

(2) 퀸즐랜드 주(QLD)

□ 일반 현황

- 면적 : 172만 km²
- 인구 : 701만명(호주 내 2위)
- 주도 : 브리즈번(Brisbane)
- 주수상(Premier) : Steven Miles
- 주요 도시 : 케언즈(Cairns), 골드코스트(Gold Coast)

□ 주요 특징

- 농축산업, 관광업에서 광산업까지 다양한 산업이 발달
 - 퀸즐랜드 주에는 호주 석탄광산이 집중돼 있어 해상 수송을 통한 전 세계 제철용 원료탄 공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호주 최대 농경 지대 및 목축지 보유로 소고기, 곡물, 각종 야채 및 과일의 주 생산지역이며 퀸즐랜드 농업은 주 경제에 연간 100억 호주달러 규모로 기여하고 있음.
 - 한편, 퀸즐랜드주는 홍수, 사이클론, 폭풍, 산불, 폭염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 특히 취약하며, 최근에는 2025년 3월 구(舊) 열대성 저기압 알프레드가 남동부 지역에 영향을 미친 바 있음.
 - 퀸즐랜드는 COVID-19 이후 국경 재개방과 맞물려 관광·문화·스포츠 산업의 부활을 견인하며, 2032 브리즈번 하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통해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본격화하고 있음
 - 대회 준비 과정에서 스마트 교통망, 재난 대응 기반 시설, 친환경 경기장 건설 등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면서 홍수와 같은 기후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도시 회복탄력성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
- 호주의 세계적인 휴양지, 'Sunshine State'
 - 퀸즐랜드는 열대·아열대 기후로 평균 최저기온이 영상 20.6도여서 해외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의 휴가지로 인기임. 퀸즐랜드 전체 해안은 7,000km에 이르고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인 그레이트배리어리프와 해양스포츠가 발달해 있는 골드코스트, 케언즈, 프레이저섬 등이 주 휴양지역임.

(3) 서호주(WA)

□ 일반 현황

- 면적 : 252만 km²
- 인구 : 298만명(호주 내 4위)
- 주도 : 퍼스(Perth)
- 주수상(Premier) : Roger Cook
- 주요 도시 : 프리맨틀(Fremantle), 브룸(Broome)

□ 주요 특징

- 원주민 거주 지역이자 호주 최대 자원 보유지역
 - 서호주는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이 4만 여 년간 거주한 지역으로 유럽인들이 서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한 시기는 19세기 초임. 호주 다른 곳과 달리 죄수 유배지로서 시작하지 않은 지역이며 1890년대 서호주 중부와 남부 아웃백에서 금광이 발견되며 대규모 인구가 유입되기 시작함.
 - 호주 전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서호주는 철광석, 금 등 지하자원의 보고로 글로벌 기업인 BHP, 우드사이드 에너지, FMG 등의 광산기업들이 포진해 있음. 최근에는 세계 자원산업의 허브로 앞서나가고자 기술혁신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첨단 광산업을 육성하고 있음.
- 아웃백과 웅장한 해변이 어우러진 지형과 다양한 기후 분포
 - 서호주는 면적 대비 거주민이 적어 대부분의 지역이 야생의 상태 그대로임. 붉은 사막, 파도 모양으로 굳어진 거대한 바위, 사암 돛이 형성한 협곡, 원시림이 가득한 국립공원, 해양 생물들이 해변까지 다가오는 자연환경을 보유함.
 - 서호주의 북서부 지역은 아직도 미개척지이며 퍼스에서 남쪽으로 3시간 거리인 마가렛 리버 지역은 서호주 최대 와인 산지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동굴들이 밀집해 있으며 영화 아바타의 촬영지이기도 함.
 - 서호주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기후를 보유하고 있는데 남쪽은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 북쪽으로 갈수록 열대 사바나 기후대를 보임. 중부 내륙지역은 건조한 사막 지대로 여름철 40도가 넘는 폭염이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함.

V. 호주 체류 정보

1. 비자 및 체류기간

○ 호주 입국 상세 요건

- 유효한 비자 소지(ETA 포함)
 - * 호주 입국 시에는 관광 또는 상용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하며 출국 전 최소 5일 이내에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안전함
 - * 다만, 예외적으로 제3국으로의 여정 중 호주의 한 도시 경유를 할 경우에는 공항 내에서만 8시간 범위 내에서 비자 없이도 체류가 가능함

○ 체류 기간 및 연장

- 관광비자로 호주 입국 시 체류 기간은 3개월이며, 최대 1년 동안 원하는 만큼 호주를 방문할 수 있음. Electronic Travel Authority 전자비자 (ETA)는 호주를 관광이나 상용 목적으로 방문하는 여행객을 위한 비자이며 ETA는 전자비자로서 여권에 비자 라벨이나 도장이 필요 없음
- 호주 내무부 공식 ETA 신청 방법:

<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listing/electronic-travel-authority-601#HowTo>

<Australian ETA 앱>



자료: 호주 내무부

2. 출입국 절차 및 유의사항

○ 입국절차

- 여권, 항공권, Incoming Passenger Card(입국카드)를 호주 공항 입국 심사 창구에 제출, 입국카드는 기내 배부 및 입국 심사장에 배치되어 있으나 호주에 착륙 전에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여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임
- 호주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SmartGate) 이용 시, 따로 입국 심사 창구로 갈 필요가 없으며, 짐을 찾은 후 세관 신고와 함께 입국카드를 세관 담당자에 제출하면 됨
- 2016년 6월 20일부터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은 호주의 자동화 출입국시스템인 스마트게이트를 한국을 포함한 15개 국가의 전자여권 소지자에 개방함. 해당 자동 출입국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등 지정된 15개 국가에서 발급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함
- 스마트게이트는 호주 애들레이드, 브리즈번, 케언즈, 다윈, 골드코스트, 멜버른, 퍼스 그리고 시드니 국제공항에서 이용이 가능

<스마트게이트 사용방법>

1단계 :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	2단계 : 스마트게이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여권을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 삽입 2) 화면에 나타난 질문에 스크린을 터치하여 답변 3) 모든 답변이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키오스크에서 티켓 발급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스마트게이트 키오스크에서 발급받은 티켓을 스마트게이트에 삽입 2) 바닥의 발모양 사인 위에 서서 정면 카메라 응시 및 사진 촬영 3) 모든 절차가 완벽하게 마무리 된 후, 기계에서 티켓 회수. 회수한 티켓은 체크인 짐을 찾은 후, 입국신고서와 함께 세관 담당자에 제출

자료: 호주 이민·국경 보호청

○ 입국 시 통관 유의 사항

- 식품, 목제품, 면세 한도 성인(18세 이상) AU\$900, 아동 AU\$ 450 초과 물품, AU\$10,000(US\$7,000) 이상 현금 휴대 시 입국신고서에 기재해야 하며 신고서 기재 시 세관검사를 받아야 함
- **(중요)** 특히 김, 젓갈, 고추장, 오징어, 사과, 과자류 등 모두 해당되며, 포장 과자 등 먹을 수 있는 모든 식품은 반드시 신고해야 함
- 통관 중 입국 신고서에 미신고 품목 적발 시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통관 수속이 지연됨
- 신발 바닥에 흙이 묻어있는 경우 세관이 소독작업을 거친 후 통관을 허용하기 때문에 통관 수속 지연의 원인이 됨
- 담배 25개피 또는 시가(cigars) 25그램까지 면세 허용

3. 시차

- 1시간(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8시)
- 2시간(서머타임) 매년 10월 첫 일요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4월 첫 일요일까지 (ex. 호주 시드니 오전 9시 = 대한민국 서울 오전 7시)
- 퀸즐랜드주의 경우 서머타임을 시행하지 않음

4. 시드니 지역 기후

○ 여름 (12월 - 2월)

- 평균 20도 안팎 날씨로 한국의 여름보다는 기온이 낮은 편이나, 전체적으로 건조하며 태양이 강하므로 하루 최고온도가 38도까지 오르기도 함

○ 겨울 (5월 - 10월)

- 낮엔 서늘하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편이니, 간편하게 걸칠 수 있는 도톰한 긴소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시드니 월별 평균 기온>

(단위: °C, 일수)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최고	26.4	26.3	25.2	22.9	20.0	17.6	17.0	18.3	20.5	22.5	24.0	25.7
최저	18.8	19.0	17.8	14.1	10.9	8.6	7.1	8.1	10.3	13.1	15.3	17.5
강우	11	11	12	11	11	11	9	9	9	11	11	11

자료: 호주 관광청

6. 팁, 카드결제 관련

- 식당 등 서비스업종에는 가격에 봉사료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팁을 지불하지 않아도 됨, 지불시에는 평균 식대의 10% 이하가 일반적임
- 카드결제는 비교적 수월한 편이나 아멕스나 다이너스를 거부하는 곳도 일부 있음
- 호텔, 레스토랑 등 신용카드 결제시 수수료(약 0.3%)를 지불하는 곳이 많음

7. 전력 및 콘센트 사용

- 전압은 240볼트, 50Hertz임. 한국산 전자제품 사용 시, 삼각 플러그 어댑터 (일명 돼지코)가 필요함

8. 전화사용

- 호주에서 외국전화시 0011 누르고 국가번호 시작
(ex) 한국으로 전화: 0011-82-지역번호-전화번호/ 수신자부담전화: 1800-88-1820
- 긴급 전화: 000(화재, 경찰신고, 구급차 등)

9. 시내 교통

○ 버스/트램

- 기본요금: A\$3.20(구간별 요금적용), 하루 24시간 무제한 이용가능(Daily Fare Cap): 월~목요일 A\$18.70 / 금요일,주말 A\$9.35. 단, 성수기 이외에 대중 교통을 이용할 시 30% 할인된 금액이 적용됨. 성수기(월~목요일, 공휴일 제외): 오전 6시 30분 ~ 오전 10시 / 오후 3시 ~ 오후 7시
- 버스 이용 시 승차해야 할 버스가 정류장에 다가오면 손을 흔들어야만 정차함
- 버스/트램 승차 시 버스크드를 Tap on하고 하차 시에도 Tap off 해야 이동 구간 및 시간대에 따른 요금이 청구됨
- 버스/트램 내 현금으로 티켓 구매가 불가능해 교통카드 선구매가 권장되며 금액을 충전하여 사용함
-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에는 10분에서 15분 간격 정도로 빈번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 빈도수가 줄어들어 약 30분 간격으로 운행됨
- 시드니 지역은 Night Ride가 버스 운행 마감 시간 이후 운행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전철역으로 이동 가능함
- 시드니 교통카드 Opal 웹사이트: <https://transportnsw.info/tickets-opal/opal>

○ 트레인/메트로

- 한국에서의 지하철을 호주에서는 트레인으로 부르며 지하철역도 트레인 스테이션임. 노선이 단순하여 출장자들의 이용도 권장되지만 방문상담이 있거나 초행길일 경우 시간의 여유를 많이 두고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의 트레인 스테이션 출구에는 번호 매겨져 있지 않고 출구가 위치한 거리에 따라 구분하므로 어느 출구로 나가야 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음
- 시드니 트레인 노선:

<https://transportnsw.info/document/4746/sydney-rail-network-map-5-jan.pdf>

○ 택시

- 시드니를 처음 방문해 지리에 밝지 못한 출장자들에게는 장거리가 아닌 경우, 택시 이용이 권장됨. 요금이 비싸기는 하지만 가장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장거리인 경우에는 전철을 이용해 목적지 근처에서 하차한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 내 우버(UBER), 디디(DiDi)와 같은 공유택시가 활성화되어 있고 모바일 앱으로 이용 가능하며 도착지를 미리 선택한 후 이동, 이동 경로, 예상 도착 시간 및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함
- 택시요금 : (낮) 기본요금 A\$3.6, A\$2.19/Km 부과(한국 대비 3배 수준)
- 택시전화 : 13-2227(13Cabs), 13-1008(Silver Top), 13-2211(Arrow)

10. 기타 정보

- **(상점 운영시간)** 대형 마트를 제외한 일반 상점은 대부분 5~6시 사이 문을 닫는데 매주 목요일은 쇼핑데일로 지정되어 있어 상점들이 저녁 9~10시까지 영업(지역마다 상이)
- **(주류 구매)** 주류는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지 않으며, Liquor land, Dan Murphy's 등 전문 리쿼어샵(Liquor Shop)에서만 구매 가능. 만 18세 이상이어야 구매가능 하며 성인의 경우에도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어 이를 지참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 경우 구매자 동행인의 신분증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아울러, 호주는 해변가 및 일부 야외에서도 주류 소비를 금지하고 있음

- **(통신·인터넷)** 호주에서 인터넷 사용 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나 한국보다는 다소 속도가 느림. 대부분의 숙박시설에서는 이용객에 한해 와이파이 이용을 제공하지만 별도 사용료(보통 A\$20~30/1일)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도심에서 떨어진 국립공원, 캠핑장 등의 경우 모바일 기지국이 부족해 전화 사용도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함
- **(보행신호)** 건널목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종종 시드니 시내에서는 경찰들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함
- **(운전)** 호주는 영국식 교통 시스템을 따르고 있어 한국과 반대로 운전석이 오른쪽에 있음. 처음 호주에서 운전할 경우, 현지 교통 방향 및 법규 등에 유의해야 함. 시드니 소재의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차가 정차 중이라도 운전자가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410 호주달러의 벌금(어린이 보호 구역 544 호주달러)과 벌점 5~10점이 부과되며, 스피커폰으로 대화 시에도 휴대폰을 손에 들고 할 경우 단속의 대상이 됨. 차량 탑승 시에는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이며, 미 이행시 약 387 호주달러의 벌금을 징수함
- **(자외선)** 호주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므로 계절에 상관없이 선크림과 선글라스는 필수임. 겨울은 한국처럼 영하로 내려가지는 않지만, 일교차가 있어 밤과 이른 새벽은 한국 늦가을만큼 추우므로 겨울옷, 머플러 등이 필요할 수 있음

11. 공휴일(2025년 시드니 기준)

- 호주의 경우 대부분의 공휴일이 같으나 일부는 주마다 상이함. 시드니가 소재한 뉴사우스웨일스주의 2025년도 공휴일은 아래와 같음

공휴일 명	2025년
신년 (New Year's Day)	1월 1일 수요일
건국 기념일 (Australia Day)	1월 27일 월요일
성 금요일 (Good Friday)	4월 18일 금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aturday)	4월 19일 토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Sunday)	4월 20일 일요일
부활절 휴일 (Easter Monday)	4월 21일 월요일
국군의 날 (Anzac Day)	4월 25일 금요일
국왕 탄생일 (King's Birthday)	6월 9일 월요일
*은행 휴일 (Bank Holiday) *일부 은행 및 회계 관련 기업만 적용	8월 4일 월요일
노동절 (Labour Day)	10월 6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Christmas Day)	12월 25일 목요일
박싱 데이 (Boxing Day)	12월 26일 금요일

자료원: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

12. 주요 기관 및 긴급 연락처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주 호주 대한민국 대사관	+61 2 6270 4100	캔버라 소재
주 시드니 대한민국 총영사관	+61 2 9210 0200	시드니 소재
경찰(범죄신고)	000	-
응급 구조대	000	-
콜택시(St. George Cabs)	+61 13 21 66	-
콜택시(Legion Cabs)	+61 13 14 51	-

VI. 바이어 상담시 참고사항

1. 가격 및 인도조건

- (여러가지 변수에 대비한 가격 준비) 가격은 FOB, CIF 등 다양한 가격을 준비하고 수량에 대해서도 LCL의 경우, Container 패키징을 감안하여 수량 가격 등 바이어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준비하여 현장에서 즉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선진국형 가격 준비) 호주는 대부분의 무역상거래와는 다르게 여러 차례의 가격 Nego가 없는 편이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쟁적인 가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 (운송기간은 여유 있게 제시) 호주 바이어들은 해외에서 수입할 경우 주문 후 4주(컨테이너 기준), 6~8주(LCL 기준)의 운송기간은 극히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신속한 주문을 위해서도 운송기간은 짧게 하는 것보다는 여유 있게 하는 것이 좋다.

2. 견적서류 포맷 준비

- 오탈자 체크 및 주요거래조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미리 잘 다듬어진 표준 견적 양식을 준비하고 가격 및 특수 조건만 상담 현장에서 추가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잘 준비된 거래 양식은 상담 현장에서 계약 체결을 가능케 한다.

3. 적극적인 열정

- 상담금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이번 상담을 통해 ‘꼭 주문을 받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상담에 임하여야 한다.

4. 소규모 시장

- 호주시장은 미국과 유럽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량 주문임을 감안하여 수량과 관련 처음부터 바이어에게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상담 준비물 사전 준비

- 상담회에 참가하는 기업 출장자는 명함과 카탈로그 등 상담에 필요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한다. 또 샘플을 제대로 준비해 오지 않아서 정작 바이어가 찾는 샘플은 보여 주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경우도 생긴다. 샘플도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영어로 상담 자료를 준비

- 상담에 필요한 장치물이나 카탈로그 및 상담자료 등이 한국어로 된 것을 그대로 해외 상담회에 가져와서 사용하는 업체들을 자주 보게 된다. 바이어들은 한국어로 된 카탈로그를 접할 경우 무성의하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또 영문으로 된 상담자료 없이 바이어들에게 일일이 구두로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수출상담을 위해서는 영문으로 된 상담 자료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상담일지 준비

- 바이어가 건네는 명함에 간단히 상담내용을 메모하는 것이 전부인 기업 출장자가 종종 있다. 일정 Format의 상담일지를 준비하여 바이어와의 주요 상담내용, 특성 및 요청사항 등을 상세히 기록해 놓으면 추후 기업 출장자가 바뀔지라도 Follow-Up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8. 통역원에 대한 사전 교육

- 기업 출장자가 영어나 현지어를 잘 구사하지 못할 경우 현지 교포를 통역으로 쓰게 된다. 경험이 많은 통역도 있겠으나 대개는 유학생 또는 아르바이트 통역이기 때문에 미흡한 경우가 많다. 통역원이 상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상담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최소한 상담회 개최 30분 전에 통역원에 대한 상품설명과 함께 상담 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

9. 바이어와의 언어소통이 원활치 못할 경우

- 영어를 어느 정도 구사한다고 하지만 지역마다 영어 표현이 다르고 사투리가 많기 때문에 바이어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동문서답을 하거나 상담이 엉뚱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호주 영어는 Australian English라 불릴 정도로 독특한 발음 및 방언이 있어 미국 영어에 익숙한 한국인에게 처음 접하는 호주 영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경우 주변에 영어에 능통한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미심쩍은 사항은 바이어에게 재확인 후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10. 전자 카탈로그와 전자 견적 시스템을 활용한다.

- 최근 들어 전자 카탈로그와 전자 견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내 업체들이 늘고 있으며 이 분야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강한 분야이다. 상담회 참가 시에 가져가는 샘플의 양은 한계가 있다. 일반 소비제품은 디자인이나 색상별로 다양하여 모든 샘플 전시가 어렵고 기계류는 중량품이기 때문에 보통 카탈로그 전시에 그치게 된다. 그러나 전자 카탈로그를 활용하면 회사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효과적으로 소개할 수 있고 전자 견적 시스템에 의해 상담회 현장에서 즉각적인 오퍼가 가능하다.

11. 제품 기능에 대해 완전히 숙지한다.

- 해외 상담회에는 엔지니어보다는 영업부서 직원이 주로 기업 출장자로 파견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기계류나 IT 분야의 경우 기계 작동법이나 IT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영업부서 직원들이 바이어들에게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상담에 애로가 생기기도 한다. 필요하다면 영업부서 직원과 엔지니어가 함께 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2. 전시된 샘플은 마지막 상담일에 처분한다.

- 무역사절단의 경우 일반적으로 2~3개 정도의 지역에서 상담회를 갖는데, 첫 상담회에서 바이어와 상담이 잘 되었다 하여 샘플과 카탈로그를 소진하여 다음 도시의 상담회에서는 샘플 없이 상담을 하는 업체가 있다. 가능한 마지막 상담이 끝날 때까지 가능한 샘플을 보유하고 필요시에는 추후에 귀국하여 바이어에게 샘플을 발송하도록 한다.

13. 사후 상담 Follow-Up에 무심하지 않는다.

- 상담회에서 상담을 잘하고 귀국 후 바이어가 아무리 접촉을 하려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들이 있다. 바이어는 상담을 추진하고 싶어 하는데 연락을 끊어버리니 바이어에게 큰 실망을 주게 된다. 가격 조건이 맞지 않는다든지 주문 물량이 적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다고 단절하지 말고 바이어와 다시 협상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기타

- 상담장 내에서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잦은 휴대폰 사용은 방문객을 불편하게 할 수 있다.
- 너무 큰 소리로 말해 방문객이 주눅들지 않도록 한다.
- 상담장 내에서는 껌을 씹지 않는다.
- 상담 전날은 과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VII. 시드니무역관 안내

- 관할 지역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퀸즐랜드주, 서호주, 북부준주, 수도준주
 - (도서국) 파푸아뉴기니, 바누아투, 솔로몬제도 외 남태평양 대양주 군도
- 영문 주소
 - Korean Trade Commission, KOTRA
19.01, Level 19, 570 George street, Sydney NSW 2000, Australia
- 연락처(현지 기준)
 - (전화) 02-8233-4000, (이메일) info@kotra.org.au
- 웹사이트
 - <https://www.kotra.or.kr/sydney/index.do>
- 근무일(현지 기준)
 - 월~금 08:30 ~ 17:00 (중식: 12:00 ~ 13:00)
- 찾아오는 길(시드니 공항 → 무역관 기준)
 - (택시) George Street 570번지(George Street과 Bathurst Street의 교차로)에서 하차, 약 30 여분이 소요되며 요금은 약 56.00 호주달러(약 5만원) 내외
 - (기차) 시드니 Kingsford 공항역(국제선 또는 국내선)에서 시티(City) 방향 기차를 이용해 타운홀(Town Hall) 역에서 하차, George Street 방향 2번 출구로 나온 뒤 QVB를 등지고 도보로 조금 걸어가면 George Street와 Bathurst Street 코너에 위치한 건물(*KFC 대각선 방향) 약 20분 소요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역 이용 시 기본요금 외 17.70 호주달러의 역 이용료가 부과됨)
- 무역관 연락처

직위	성명	전화	비고
관 장	박창은	02 8233 4002	무역관 업무 총괄
부관장	김여빈	02 8233 4010	기획예산, 마케팅, K-Move
과장	조한한나	02 8233 4011	총무, 투자, 조사

/끝/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